

## '보따리' 작가 김수자 김세중조각상

June 15, 2017 | 조상인 기자

### '보따리' 작가 김수자 김세중조각상



설치미술가 김수자(60·사진)가 제 31회 김세중조각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김세중기념사업회가 14일 밝혔다. 시상식은 오는 24일

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예술의기쁨에서 열린다.

명상적이고 사색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김수자는 보따리와 이불보, 소리와 빛 등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과 퍼포먼스 등으로 자신과 사회를 탐구해왔다. 보따리 꾸러미를 실은 트럭의 짝대기에 앉은 여정을 담은 영상작품 등 '보따리' 시리즈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의 몸을 '바늘'로 상징해 도심의 인파 속에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작품 '바늘여인' 시리즈로 또 한 번 작품세계를 공고히 했다.

40세 이하 청년 작가에게 수여되는 김세중청년조각상은 이환권이, 저작출판상은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가 각각 받는다. 또 현대조각의 1세대 여성조각가인 운영자가 석주미술상을 제정·운영하며 여성미술인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로, 여성조각가 이춘만이 50년간 성상조각을 개척해온 공로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. /조상인기자 ccsi@sedaily.com